

1990 7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3층 복도까지 메운 제3차 홍해작전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사무엘상

본서는 사사 시대의 종말과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 중심의 세속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다. 기본적으로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신앙과 역할을 그리고 사울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다.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삼상27:6등을 통하여 왕국 분열 이후 어느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한 기록자가 누구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본서를 사무엘서라 이름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있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울과 다윗 두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의 신앙과 생애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서에 나타난 사무엘의 신앙과 정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국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7월의 기도제목

1.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건강과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복음사역을 위하여
3. 부교역자, 협동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4. 장로님과 권사님 제직들을 위하여
5. 8월에 있을 아시아 선교대회를 위하여
6. 농어촌 전도대를 위하여
7. 전교인 전도열 고취를 위하여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34 : 22)

첫 열매와 믿음의 열매 맥추절은 모세가 처음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며, 또 두번째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수장절과 함께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고, 또 처음 익은 열매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노동을 중지하고 성회로 공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낫을 대지 못하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식도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 몸바친 일꾼들을 기억하고 선대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성소에 들어가서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경을 암송하며 감사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계적인 교회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맥추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으로 무르익은 곡식과 같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거두어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첫열매를 드리는 정성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의 열매를 맺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1:5)

사랑과 번민 사무엘상은 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일역을 담당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제사직과 왕직과 선지직이라는 메시아의 3중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일생은 우리에게 왕권과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성령은 교회의 최고 권위이며 최종 주권입니다. 한 나라나 가정도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에 이끌리고, 겸손히 말씀에 순복할 때 이상적인 발전과 형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는 국가로 발전하는 사무엘상의 중요한 역사는 한 여인 한나에 의해서 첫 장이 열립니다. 남편인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는 무자하였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번민이며 슬픔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과 위로도 한나의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브닌나가 그의 대적이 되어 늘 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기도 하시며 닫기도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 순간을 보고 판단하고 번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번민을 기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1:15)

심정을 통하는 기도 어떤 믿음의 사람은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나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려 하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이 없고, 더 심각한 오류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생활은 마귀에게 포박당하고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비타민 결핍증이 아닌 심각한 기도 부족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핍하면 안되지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과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쉬지말고(살전5:17), 또 무시로(렘6:18)할 일이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 일의 선후를 잘 가리지 못하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육신의 힘으로 즉시 얻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없고, 그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간구가 시작된 원인을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의 기도를 시작케 했고 그것을 지속시켰으며 응답을 보게 하였습니다.

**** 통곡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큰 기도제목을 받은 성도는 복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문제를 갖고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십시오. 그리고 얼굴에 수색 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4 (수) 한나의 헌신

찬송351 성경, 삼상1 : 19-28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1 : 28)

기억된 서원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렘33:2). 만사가 그분의 작정하심에 달렸고, 모든 일은 그분의 뜻과 주관하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한나가 무자하여 번민하던 무렵 하나님의 뜻 속에는 이미 그를 통하여 주실 아들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격동되어 번민하며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여 그 자녀를 위한 헌신을 서원하기까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불경건한 브닌나가 오히려 자녀를 낳고 형통하며 경건한 한나가 수치 가운데 오염하기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사45:15). 오늘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좌절을 보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필경에는 복을 받고야 말며, 악인은 잠시 잠간 후면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겨와 같이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어코 한나를 통곡 중에 기도하며 서원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한 것을 응답의 축복을 받은 후에 잊지 않고 실천한 것입니다. 은혜받은 한나는 신실함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원의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갚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시50:14).**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기도 오늘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하여 세우신 집사님들과 모든 제직들에게 헌신의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2 : 1)

성도의 기뻐할 제목 성도에게 있어 기도와 찬송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성도는 쉬지말고 기도도 하여야 하지만 항상 기쁨으로 찬송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즐거울 때 기도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약5:13).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지만(1절) 한편 그것은 한나의 노래요 찬송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기쁨이 원동력이 될 때 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심을 기쁨으로 노래하였습니다. 1절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절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이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에, 인본적 기쁨과 구별됩니다. 한나의 마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의 뿔(강력한 능력과 존영의 상징)은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고, 이 기쁨이 폭발하여 구약의 위대한 기도가 되어 터져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과 변민이 변하여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며 지존하신 구원주요 반석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의 찬송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패퇴하며 그의 주권 앞에 겸비하고 경건한 자는 그의 구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 은혜받은 성도의 특징**은 모든 교만과 인간의 자랑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가문과 배경의 자랑은 못박혀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2 : 12)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롬 15:4). 성경의 의인들은 우리가 따를 본을 보여주며, 악인들의 악행은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마에 찢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탐욕으로 취했습니다. 그 태도가 불량했고 그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또 기름은 여호와의 것으로서 제단 위에 바쳐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취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억지로 강탈하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17절은 이들의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며, 그 죄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범 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득죄한 것입니다. 제사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구약성경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제사에 대한 언급은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제사를 그릇되이 행하는 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 까지를 전반적으로 어기는 일입니다. 인간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회복합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무시함으로 종교적인 불량자였고, 같은 맥락으로 사회적 불량자도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 나에게는 탐욕의 갈고리, 무절제의 갈고리가 없는지 생각합시다. 굶어 모으는 것보다 흠어 나누어 주는 것이 복있는 생활임을 기억합시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2 : 25)

파괴적 고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과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어릴 때부터 경건과 성결을 훈련함으로 평생토록 그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만인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후에 엘리가 축복한대로 더 많은 후사를 얻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오직 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를 아끼고 자기 서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여호와께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과 비견되는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 처럼 사무엘을 드린 한나는 여섯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드린 한 아들은 하나님을 드림이 아니요 그 전체를 드린 헌신인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섯 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부족하여 온 나라에 악행하고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엘리가 그들에게 경책하였으나 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고받아도 회개치 않는 파괴적 고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것을 보여줍니다.

** 나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나의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성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8 (주일) 엘리 아들들의 심판

찬송473 성경, 삼상2 : 27-36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2 : 35)

철저한 보응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 두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공의와 긍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지극히 긍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때는 그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상극되어 화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속성이라도 하나님의 신적 성품 안에서는 온전히 조화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근본적으로 중생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2:12).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만큼 비참하고 위험천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이 안계시거나 아니면 무능한 신인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행에 악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는 사람들은 거듭되는 범죄를 멈출줄 모르고 경고하는 전도자의 음성에 귀를 막으며 회개치 않고 멸망의 고집만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관용을 거두시고 공의대로 심판을 베푸실 때 악인은 철저한 보응을 받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 나는 죄의 고백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꾼으로 나를 드리고 있는가?**

「아이 사무엘이…여호와를 섬길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3 : 1)

하나님의 음성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7절). 더구나 그 당시에는 계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지도자가 없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는 말씀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 출신의 사사인 엘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백성을 깨우치고 인도하여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사사 자리를 지켜오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나 성전을 섬겼던 엘리에게 까지 더 이상의 계시도 이상도 보여 주시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아버지와 하나님과 가족에게 헌신적이며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무엘은 매우 부지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든 할 각오를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 하며 자원하여 봉사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그 어떠한 법보다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 성령의 역사는 성경말씀과 더불어 행하여집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넘치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옵소서. 충현의 온성도가 전도의 열로 불붙게 하옵소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3 : 12)

지체된 정책과 회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엘리와 그 자손을 심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에게 경고하신 바입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행하였으나 아버지 엘리는 지속적인 훈계를 힘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고(삼상 2:29) 과잉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경책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를 시행하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사랑이 아니라 태만이었습니다. 바른 신앙교육은 잘못을 범한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을 때에는 엄한 징계를 행하여야 합니다(잠 20:30). 아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은혜를 거절한 연고로 멸망의 길로 가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맡은 자녀 교육에 대한 권위는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3:20)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무엘이 어리지만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한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도록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백성들이 환영한 사실을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 역시 무서운 정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순순히 이에 응할 태세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하심은 악한 시대에 산 그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에서 보호하여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해 주셨고 선지자의 사명과 통치권과 사법문제까지 잘 감당하도록 항상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의 마음을 주셔서 민족적인 축복을 가져오고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진 선지자로서의 지위는 북단 성읍 단에서부터 남단 성읍인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꺼이 자신의 종이 되기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 ※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그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은혜를 귀하게 알고 우리도 쓰임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죽임을 당하였더라」
(4 : 11)

미신과 참 믿음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파되어서 어둡던 땅에 광명이 비추이기 시작한 때에 이스라엘 숙적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사천 명 가량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장도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에 두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면 하나님도 함께 운반되어 블레셋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전장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믿음을 갖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때에야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참된 믿음을 미신으로 변질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며 참믿음을 갖고 당신의 도움을 구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삼만 명의 전사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미신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4 : 21)

이가봇 이스라엘이 참패하여 삼만 명이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며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홉니와 비스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들은 엘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해산이 가까웠던 그의 며느리 비스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고통중에 해산하여 아들을 낳고 죽어갈때 그녀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녀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절규하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영광이 없다.” 또는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사실 언약궤의 임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즉 은혜 언약백성이라는 영광도 사라져 이스라엘에 영적 암흑기가 왔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백성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끌지 못하고 자신과 가정의 경전을 책임지지 못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와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질 때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영광도, 모든 기쁨도 선한 것도 함께 사라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14 (토) 비할 데 없으신 하나님

찬송393 성경, 삼상5 : 1-5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머리와...손목은 끊어져」(5 : 4)

다곤의 처참한 패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겼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자신들의 신 다곤앞에 상으로 놓아 두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것은 다곤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곤은 승리자이며 하나님은 그의 포로인 양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다곤은 본래 뱀사람인 블레셋 족속들이 곡물을 생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해서 곡물 신에다 물고기 신을 합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우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부숴지고 말았습니다. 다곤의 목이 끊어져 머리가 없어진 것처럼 모든 우상은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다는 것과 또한 목이 끊어진 것처럼 모든 우상은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잘린 부분들이 문턱에 놓인 것은 사람에게 밟히도록 던져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곤 뿐 아니라 모든 우상들이 거짓 신들임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다곤과 같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헛된 우상으로 그 형상과 영광을 비견하는 모든 시도는 단연코 거부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더하시...독종의 재앙으로...망하게 하니」(5 : 6)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당신을 모독하던 블레셋인들에게 약7개월간 연속적인 재앙을 통하여 자신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공의로 징벌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다곤의 손은 끊어져서 땅 위에 뒹굴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라는 전리품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질병을 끌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회개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단지 종교적 행위와 물질적 풍요만을 취하려는 자에게는 그가 얻은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독극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홀로 계시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여기저기 보낸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벌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받게 만듭니다. 육신에 속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지않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멀리 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며 당신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들은 철저히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상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속한 자까지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6 : 2)

바른 해결책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온 다음 날부터 온 성읍에 큰 재앙이 임하자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 소와 수레를 준비했으며 속건 제물을 함께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성물들을 옮길 때는 소와 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성물 중에서 법궤는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했으며 그들이 드린 속건 제물도 성경이 말씀한 속건 제물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보다 자기들에게 닥친 재앙만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 불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성도의 삶에 때때로 닥쳐오는 고난은 성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6 : 20)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여호와와의 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궤를 들여다 본고로 (오만)칠십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물에 외인이 가까이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셨고 레위인 만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특히 성소 안의 성물은 레위인도 결코 만지거나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이 성물을 짜서 고리에 채를 꿰어 놓으면 운반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임함을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민4:17-20). 이는 죄인이 결코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롬 2:12). 블레셋은 율법 없이 망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나 참된 신앙으로 맞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와의 궤를 들여다 본 벤세메스 지방은 지도자격인 레위 족속의 거주지였으니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구약은 신약의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 위와 같은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늘 겸손하고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18 (수) 사무엘의 설교

찬송102 성경, 삼상7:1-4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7:3)

진정한 회개 여호와의 궤가 벰세메스에서 기랴여아림에 안치된 지 20 년만에 여호와의 궤를 성소로 옮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여호와의 궤의 필요성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자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었던가를 가히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나, 섬기는 것들을 다 제하고 그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마음을 확고히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함 없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고히 정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따라 모든 우상을 제하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그만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 *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욕이 제거될 때 우리의 삶과 섬김이 하나님께 열납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6 : 5)

구국의 길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게 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으며, 온 백성은 그 날 금식하며 다시금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순종을 서약하는 의식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집회였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박해 온 블레셋으로부터의 과거를 청산코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자기와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때 자기 백성의 보호와 승리를 확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승리는 이스라엘의 신앙회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사무엘의 설교와 기도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의 바른 자세와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우리 나라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민족 가운데 미스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한국 교회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리남의 안석렬 선교사님 가정이 정착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7:12)

깨달는 신앙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로써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전투는 이스라엘 전쟁사에 기록될만한 전쟁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했고 팔목할만하게 번영과 세력 확장을 가져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군대의 칼과 활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보여 준 사실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그 큰 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돌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승전 기념비를 나의 이름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나의 지혜와 내 팔뚝의 힘으로 된 것인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전투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잃었던 옛 성읍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싸움은 군대의 칼과 활의 힘에 있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팔라우의 김익경 선교사님 가족을 붙드시고 하루속히 복음사역을 진행하게 하옵소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8 : 7)

신앙의 형식과 내용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구실로 왕을 세워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왕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17:14-20과 민 24:7, 17에서 왕권 제도를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불신앙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을 통하여 여호와와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신앙적인 입장이 아니고 스스로의 이기적 필요에 따라 여호와와의 통치와 인도를 불신하며 거부하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목과 형식은 바른 것 같으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 반역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뜻을 쫓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뢰하고 살아 간다면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 1:22).

※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쫓고 있습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하라」(8 : 9)

사무엘의 경고 사무엘은 왕의 특권과 그로 말미암아 야기될 문제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로 젊은 아들들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것이고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징세로 경제적인 압력을 받으며 종들과 나귀를 징용 당할 것이며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고 그들이 택한 왕에 의해 압제 당하나 불신앙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여호와와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눈 앞의 근심을 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방의 위험이 계속 상존하고 이방의 적을 대항할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이고 부패한 사사가 통치하는 것보다는 유일하고 항존적인 통치기구와 힘있는 통치가 절실히 요구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상충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늙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왕의 제도에 대해 먼저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 하나님의 뜻을 묻기 보다 내 뜻과 방법을 먼저 정한 후에 일방적으로 구하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혹 주실지라도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하리니」(8 : 19)

강박하지 않은 심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충고를 거절하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사사시대의 말기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후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철회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강박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고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 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그 결과 스스로의 행위에 마땅한 징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히 3:13, 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시면서 아울러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죄와 과오가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과 계획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를 통해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 왕국 건설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변함없이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돌이키며, 행하는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9:2)

외모 사울은 매우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얼굴과 훌륭한 몸매, 더우기 어깨 위는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나 덕성, 그의 경건성이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갖추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울이었지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범하지 못하였고 겁이 많았으며 비정상적으로 질투심이 강하였습니다. 천성적으로 뛰어난 인물과 좋은 환경을 가진 사울이었으나 그의 성격과 신앙심의 결여로 훗날 자기의 생명을 파멸시켰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인격과 신앙심이 없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떠나 거스리게 되며 끝내는 파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아지기 위하여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준수한 소년' 사울을 주셨습니다.

******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외모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종종 실망하게 될 것이며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9 : 8)

성실함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숨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야 하며 어떤 직임을 맡기시더라도 기꺼이 맡으려고 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은 것과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일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 장차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일로 연결되는 것을 볼때, 우리는 매사에 성실하게 일을 수행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나귀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사울에게 좋은 방안을 제안하는 사환의 모습에서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하실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가령, 직장, 사업, 학교,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 * 장차 큰 일이 맡겨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고, 나의 위치가 바뀌고 변화가 오면 보란 듯이 해보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장래에 들어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26 (목) 사무엘을 찾게 된 사울

찬송429 성경, 삼상9 : 11-17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9 : 16)

하나님의 인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스로 암나귀를 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울로 그 나귀를 찾아 두루 다니게 하였습니다. 결국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전 날에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치밀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작고도 보잘 것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원대하고도 크신 뜻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셔서 우연과 같은 평범하고도 사소한 일을 통해서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배후에 계셔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높게 하옵소서. 하기 전도대로 놓여준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놓여준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9 : 20)

겸손한 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선지자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위세를 부리거나 수행원을 거느리지 않았고 겸소한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환대하였습니다. 공적인 잔치의 가장 명예로운 수석의 자리에 사울을 앉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고기의 넓적다리 부분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사울의 높아짐은 사무엘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시기하거나, 악의를 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영예를 씌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행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사울의 겸손은 또 어떠합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듣고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천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비록 키가 크나 왕이 될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지파와 자기 집안에 대해서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소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고전 15:9-10, 고후 12:9-10)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28 (토)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

찬송 176 성경, 삼상 9 : 25-10 : 8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10 : 1)

성령의 부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기름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의식은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것과 그 임무를 위하여 신성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음으로 왕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으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사울에게 세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가지의 징조는 자기 조상 라헬의 묘실 곁에서 가족의 염려를 말해 줄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과, 다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과, 블레셋 영문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의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충분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를 새 역사에 쓰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 자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수행하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10 : 9)

새 마음 사울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날에 사무엘이 말한 징조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령)이 크게 임할 때에 사울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그를 전부터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그의 가문이 선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숙부에게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묻는 숙부의 질문에 사울은 암나귀에 대한 말만 할 뿐 왕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자랑하지 않았으며 사려깊은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모든 것을 말하였다면 어떤 시기와 어려움이 닥쳤을런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입니다. 새 마음과 새 인격이 주의 일을 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인격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새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딱하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새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30 (월) 왕으로 뽑힌 사울

찬송36장 성경, 삼상10 : 17-24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10 : 24)

나의 왕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 19절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이와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름을 경고하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구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숨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으나 한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비록 해로울지라고 계속 요구할 때에는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종종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됩니다.

**** 나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10 : 26)

동역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말해주고, 이를 책에 기록 하여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이같이 하는 이유는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선택도 끝나고, 흥분도 가시고, 소동도 잠잠해 졌습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하며 사울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울의 집안이 미천하다는 것과 학식과 덕망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는데도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한 바를 주셨을 때에 이를 만족하며 더욱 성취시켜 나가며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를 증거해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말뿐이며 원하는 바를 주셨을 때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함께 가게 하였고 사울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 *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여 기도하며 행동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울을 위해 준비해 주셨는데 나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